



3면

3차 번째 '에피제' 유족 반발... 혐로 예고

# 전주매일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음 2월 16일)

제32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 한덕수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한 박영기 공동위원장(전북대 교수),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개발 본 궤도 진입을 위한 4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 도-교육청-시군 협치 '평생학습사회'로 성큼

올해 전북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균형있는 평생학습 등 네가지 추진전략 설정

개선하고 근거리 학습권 보장,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모두 배움터 운영 및 조성지원(38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열고 2023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교육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기반해 평생교육법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도 평생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청 및 14개 시·군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담고 있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북도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전북'이라는 비전과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여기에 전북도는 교육청, 관계기관, 시군과 총 297개 세부사업에 564억원을 투입하고 민선8기 핵심전략 중 하나인 창의·협치 교육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균형있는 평생학습사회 추진'이다. 지역 내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도민의 학습권을 확대하고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사업(48억),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6.9억)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일상생활 중심의 평생학습 실현'은 도농간 평생교육 환경 격차를

세 번째 '자아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역량 강화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시민교육프로그램 및 시민대학(5.6억)을 추진한다.

네 번째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력 제고'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인공지능에 기반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1억), 시군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2.6억)을 운영한다.

또한 4대 추진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등 거점 교육시설을 활용해 학습 소외계층 등 지역간 계층 간의 학습격차 해소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마을회관 등 일상 생활권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학습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민수요를 반영해 교육서비스 질도 높인다.

더불어 각 지역 시민대학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직업훈련 전문교육을 통한 자기계발로 지역사회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한다. 변화하는 학습환경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습다짐을 방지하고 비대면 학습역량도 제고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치를 강화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전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한 총리 "새만금개발 가속화할 것"

제29차 새만금위원회 주제

올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 추진계획 등 4개 안건 논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 조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

획층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등을 위해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 국제 무역항 지정도 추진한다.

농생명용지 조성 관련,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 2025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제도 개선 및 위반행위 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끝으로 새만금지구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산업물류용지 추가 확보, 공항 고도제한 및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총리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

경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 산업용지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 등 정주여건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류와 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 철도, 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물류의 관문인 신항만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새만금도로의 십자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복합도시 건설, 고교산군도 체계적 개발 방안 마련 등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도 구체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오는 8일 치러진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도내 14개 시·군 206개 투표소를 활용해 111명의 농·수·산립조합장 선출 선거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특히,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

## 내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전북 111명 선출

오전 7시~오후 5시 도내 14개 시·군 206개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증을 지참해 해당투표소를 방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tv/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 기표함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관 관계자는 밝혔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마련된 격리자 특별투표소 안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0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